

「抽象」과 唯物辯證法

陳伍

—

社會科學에 있어서 한개의社會現象 또는 그것의運動을 研究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出發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社會科學 研究의 出發點의 問題이다. 出發이 없으면 研究를 進行시킬 수 없는 것은 勿論이니 이곳에 出發點의 問題의 重要性이 있다. 그러나 「모든 端初는 困難한 것이다.」(一) 出發點의 問題는 이리해 重要性과 困難性의 二重의 課題를 우리에게 負擔시킨다.

出發點의 問題를 經濟學에 局限해 보자. 그러면 어더케 되는가?

「一定한 地方을 政治的 經濟的으로 觀察할 때에는 우리는 그 人口, 人口의 階級的的, 都市的, 陸地的, 海洋的及 各種 生産部門으로의 分布, 輸出과 輸入, 年々의 生産과 消費, 物價等으로부터 始作한다. 實在의 이오 또 具體的인 現實의 前提로부터 始作하는 것, 例를 들면 經濟學에서는 全社會의 生産行爲의 基礎요 또 主體인 人口로부터 始作하는 것이 正當한 것 가치 보인다.

「그러나 더 잘 觀察해보면 이것은 틀림없을 안다. 人口는 例를 들면 그것을 構成하는 諸階級을 度外視하면 한개의 抽象이다. 이階級도 또한 그것의 基礎인 要素, 例를 들면 賃勞働, 資本等을 認識하지 아니하면 空虛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또 交換, 分業, 價格等을 豫想한다. 例를 들면 資本은 賃勞働, 價値, 貨幣, 價格等이 없으면 아모것도 아니다.

「그런故로 내가 萬一 人口로부터 始作한다면 그것은 混沌한 全體의 表象일 것이다. 이리해 나는 보담 詳細한 規定에 依하여 分析的으로 漸次 보담 單純한 概念으로 갈 것이다.

「表象된 具體物로부터 漸次 稀薄한 抽象物로 나아가 드디어 가장 單純한 規定에 到達할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나는 歸還旅行을 始作하여 드디어 다시 人口에 到達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人口는 混沌한 全體의 表象이 아니라 多數의 規定과 關係를 가진 豊富한 全體일 것이다.」(二)

經濟學研究法에對한 以上의規定은 두개의過程을 包含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눈알헤노힌 具體物로부터 漸次抽象的인 單純한要素로 向하는過程이오(下向運動) 하나는 그單純한要素로부터 다시 그처음의材料에까지 綜合向上해가는 所謂「歸還旅行」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經濟學의出發點은 具體的인人口現象이아니라歸還旅行(上向運動)의出發點인 抽象的인商品인것이 明白히 되었다. 처음부터人口를가지고 論議하면 結局 混沌으로빠지고만다. 商品으로부터出發하여 그의論理的必然을사러 漸次具體的인人口現象-關係와規定을만히가진豐富한全體로서의 媒介的具體로서의 人口에까지到達하여야만 비로소 科學的이라고 일켜를수잇는것이다.

出發點의問題는經濟學에잇서서는 이리하여임의解決되었다고볼수있다. 다른 社會科學에잇서서도 亦是가튼方法을應用함에依하여 問題는解決될것이로되 實際에잇서서는 이것이그리容易하지아니하다. 다가치唯物辯證法的方法으로出發點을定立하기爲하야努力하면서도 그到達한結果는相異한것이現下의學界의實情이다. (二a) 그러나이러한困難이잇슴에不拘하고 무엇을 그科學研究의出發點으로삼을것인가하는것은如前히그研究의失敗도는成功의分岐點이아니면 아니다. 이小稿의目的은 이科學研究의出發點을發見하는方法을明白히해보라는 곳에있다.

(一) 「資本論」高島譯 改造社版 第一卷 序文 五頁.

(二) 「經濟學批判」序論 全集 第七卷 四〇〇頁.

(二a) 法律學의出發點이「法律主體」이나「占有」이냐하는問題를싸고도는「과슈카-니스」와「라즈모옌스키」의論戰을想起하라.

二

自然科學에잇서서는 研究의出發點은 比較的容易하게 定立된다. 그것은發育된生體를 窺코 顯微鏡과 化學的反應料로써 實驗을 할수잇기때문이다. 그러나「經濟上의諸現象의 分析에잇서서는 顯微鏡도 化學的反應料도 所用이없다. 抽象의힘으로써 이두가지에代用하여야한다. 쾰르조와의社會에對하야는 勞働生産의商品形態 또는商品의價値形態는 정히經濟上의細胞形態인것이다.」(三)

自然科學의研究는 細胞로부터出發한다. 그러나 이細胞에到達하는過程은 比較的容易하다. 그것은「實驗」을 할수잇기때문이다. 이에反하야 經濟學아니 社會科學一般에잇서서는「實驗」이 不可能함으로「抽象」으로써 自然科學適觀察方法에代用하야 그「細胞」를 發見하는수박계업다. 「下向運動」의 本質的部分은「抽象」이다.

그러면 抽象이란 엇더한것인가?

問題는 簡明한듯하나 實狀은 이곳에非常한困難이있다. 「抽象」의解釋如何에 차러서는 唯物辯證法은 玆대하면 觀念的辯證法이되며 맑스主義는 헤겔主義로 逆轉한다. 뿐아니라 맑스는經濟學에잇서서는 이「抽象」의 훌륭한「모델」을 보여주엇지만 抽象그것의本質規定에 對하야는 別로히남겨노은것이 업슴으로 困難은 倍加한다. 내생각으로는 이「抽象」을 正當히規定하는것은 唯物辯證法의 希望峯인가도한다.

抽象의意識에對하야 普通나리는定義는 다음과갓다. 抽象Abstraktion 이라는것은

「事物또는表象의 엇던側面또는性質만을 抽離하야把捉하는心的作用이다. 그 째에自然히다른側面또는性質은 버리게된다. 이것을抽象이라한다. ……抽象作用이 特히必要한것은 다만엇던事物또는表象의 任意의一側面을抽出함에 窺치지아니하고 만흔事物또는表象間에 類似한性質을認定하고 그性質을抽離하야 更히綜合하야 한抽象的一般概念을 構成함에잇다……」(四)

이定義에서 于先注意할것은 여기서는 抽象作用은「事物또는表象」에關한것이라하엿스나 抽象은「事物」과「表象」에만 잇는것이아니라 事物과表象의「運動」에도 또한適用할수잇다는것이다. 于先 이것만을 訂正해노코 論을進行식히기로한다.

抽象은 이리해 모든事物과그運動의 本質的, 論理的性質을 抽離해 把捉하는心的作用이다. 例를들면 이곳에 한채의 집이잇다하자. 그집의特殊한諸形相과 밧그집을建築한材料等屬을 漸次抽離해버려가면 우리는 다만한개의「物體」라는것에 到達할것이다. 이過程은 틀림업시「抽象」의方法이다. 그러나「抽象」은 다만한번으로 스칠것이아니고「가장單純한規定」에到達할새까지 反復해 하여야하는것임으로 지금 한개의家屋을抽象하야「物體」에 到達하엿슬지라도그곳에서抽象을멈추고 바로「歸還旅行」을 始作할수는업다. 物體는 이것을 또다시抽象하야 보담더「稀薄」한것으로 나갈수잇다. 실상 우리는 物體로부터 그輪廓을捨象해버릴수잇스며 物體의輪廓을捨象한結果엇는것은 한개의「空間」이다. 空間을또다시 抽象하야 空間이가지고잇는 諸次元을捨象하면 그곳에는 純全한論理的範疇인 한개의「量」박계는남지아니한다. 量을 또抽象하면「有」에到達할것이다. 事實「人間이든 物體이든 主體로부터 偶性이라고말하는一切의것을抽象해버린結果로 窮極의抽象에잇서서는 다만論理的範疇만이 實體로서남는다고말하여도 相關이업다.」(五)「範疇로서는交換價値는 노아의洪水前부터의存在가된다.」(六)

집을抽象하야「有」에到達하고 交換價値를노아의供水前부터의存在로還元하는것가튼 一切의것을論理的範疇로還元식히는것은 우리의科學研究의方法이되

지못할것은 論證할必要도업시明白한일이다. 抽象을이程度에까지슬고나가는것은 何等科學研究의出發點을定立하는所以가되지못한다. 經濟學의出發點으로서의商品을또다시抽象하여「有」에까지到達하고 經濟學의出發點은「有」라하면 이것이말이될것인가. 그러함에不拘하고 觀念哲學者들은 이런일을敢行한다.

「形而上學者들은 그러한抽象을함에依하여 分析을하는것이라고想像하고 그들이漸次그對象으로부터 져남을사러 더욱더욱더對象의本質에達한다고想像하고있다.」(七)

本質에達한다고想像하는 그들은 싸러서 이러한 窮極의範疇에 到達한後에는「그範疇속에 現實의諸關係와는獨立한自生的觀念과思想만을」보며 싸러서「그思想의起源을 純粹理性에 求하지 아니치못하게된다.」(八)

이리해「抽象」은 觀念論에達하는 大路인것 가치된다. 事實「헤-겔」이 그러케解釋하였스며「프루-동」이또한「抽象」을 經濟學研究에適用함에잇서서그러케 把捉하였다. (九)

「抽象에依하여 우리는 모든것을論理的範疇로 變形식힌것과가치 抽象的 形態에잇는運動, 純粹히形式的인運動, 運動의純論理的形式에 到達하라면 다만各種運動의全特質을 抽象해버리면 되는것이다.」

「『이方法은 아모것도이것에抵抗하지못하는 絶對, 獨自, 最高, 無限의힘이다. 그것은 모든物件속에 그것自體를發見하고認識하라하는 理性의傾向이다.』(헤-겔論理學 第三卷) 모든것은 한개의論理的範疇로도라가고 모든運動모든生産行爲가 方法으로 도라간다고하닛가 必然的으로 모든生産物과生産物體와運動이 한應用形而上學으로 도라가게된다.」(十)

以上은 헤-겔이 宗教哲學과 法律哲學에서 實行한바이다. 이리해「헤-겔에잇서서는 過去에잇섯든일 또는現在이러나고잇는일의全部가 그自身の 머릿속에일어나는것과 全然同一하다. 故로 歷史의哲學은 한개의哲學의歷史 헤-겔自身の哲學의歷史에 지나지안는다. ……헤-겔은 思想의運動에依하여 世界를 建設한다고생각한다.」(十一)

「프루-동」은 以上の헤-겔의 한바事業을 經濟學의領域에서 遂行하랴한다. 이리해「프루-동」은 生産力과 密接하게 連結되는 社會的諸關係를 理解하지 못하고 도리혀 그것을 生産力으로부터 遊離된「人間의非人格的理性」의품속에 잠자고잇는原理, 範疇의 化身이라고 생각하였다.

헤-겔과 프루-동의誤謬는 어느곳으로부터 由來한것인가? 말할것도업시 그것은 그들이 抽象을 그들의觀念論的視角으로부터 把捉하였기때문이다. 觀念論的辯證法을採用하였기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抽象을 엇더게 規定하여야

될것인가?

(三) 「資本論」 前掲同頁.

(四) 「岩波哲學小辭典」 八九五頁.

(五) 「哲學의 貧困」 全集 第三卷 五四七頁.

(六) 「經濟學批判」 四〇一頁.

(七) 「哲學의 貧困」 前掲同頁.

(八) 同上 五四六頁.

(九) 拙稿 「眞理의 二重星」 (「朝鮮之光」 第八十一號 一九二八年 十一, 十二月合併號)은 「抽象」에 依하여 우리는 그러한窮極의 論理的 範疇에 到達할수잇음을 指摘하고 아울러 그 觀念論의 破綻을 唯物辯證法의 立場으로부터 救해보라고 試驗한 것이었다. 지금나는 이 ■卒한 小論으로써 그 論文의 未備한 處를 補修하랴하는 것이다.

(十) 「哲學의 貧困」 五四八頁.

(十一) 同上, 五四九頁.

三

「抽象」의 規定如何에 涉러 자칫하면 觀念論의 誤謬로 涉러 짐이 上述과 如하다. 그러나 또 唯物論의 立場에 선다고 반듯이 「抽象」을 正當하게 規定할수 잇는 것은 아니니 그것은 機械的 唯物論 特히 十八世紀의 佛蘭西 唯物論에서 그 實例를 볼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케 말한다고 우리는 十八世紀의 佛蘭西 唯物論의 歷史的 意識를 沒却하는 것은 아니다. 「셰카르트의 唯物論이 獨特한 自然科學이 된 것과 가케 佛蘭西의 唯物論의 다른 方向은 直接으로 社會主義及××主義로 끼우러 것다」 「人間의 根本性質及 平等한 知識의 能力, 全能, 經驗, 習慣, 教育, 人間에 對한 四圍의 事情의 影響, 産業의 重大한 意味 享樂의 權利等에 關한 唯物論으로부터 그××主義及 社會主義와의 必然的 連關을 洞察하기 爲하여야는 別로 히크게 明敏함을 조금도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푸-리에는 直接으로 佛蘭西의 唯物論者의 學說로부터 出發한다. 샤버-르의 徒는 粗野한 文明化되지 아니한 唯物論者이다. 그러나 發達한××主義도 또한 直接으로 佛蘭西의 唯物論에 由來한다. ……科學的인 佛蘭西의××主義者 드자미 게이 등은 ……唯物論의 學說을 眞正한 人道主義의 學說이라고 또××主義의 論理的 基礎라고 說明한다」 (十二)

이러듯이 重要한 使命을 다한 佛蘭西 唯物論은 그러면 무슨 答으로 「抽象」을 잘못 規定하였는가?

그것은 첫재로는 現實을 그 歷史的 過程에서 辨證法의 發展過程에서 把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쓰를 引用하자.

「……工藝라는 것은 人類의 能動的 關係, 換言하면 人類生活의 直接的 生産過程, 따라서 또 人類의 社會의 生活事情及 그로부터 生하는 知的 諸觀念의 直接的 生産

行程을 闡明하는것이다. 이러한物質的基礎를 閑却하면 宗教史일지라도 無批判的의것이 되어버린다. 事實 分析에依하여 宗教의 夢幻的觀念의現世의核心을 發見하는것은 各個의境遇의實生活上의事情으로부터 그天國化된諸形態를 展開하는것보다도 훨씬容易하다. 이後者야말로 唯一한 唯物論的인 싸러서 科學的인 方法인것이다. 歷史的過程을 排除하는 抽象的 自然科學的唯物論의 弱點은 그代辯者들이 그들의專門的領域外에 나왔을때에 갖게되는 抽象的, 觀念論的諸種의觀念에依하여도 알수잇는바이다」(十三)

이리해 그들—抽象的, 自然科學的唯物論者—十八世紀의佛蘭西唯物論者—들은 事物의歷史性을忘却하였다. 이것이 그들이「抽象」을 現實로부터遊離시킨 첫 재의原因이다.

둘재로 이것을 人間에局限하여 보면 從來의唯物論者들은 人間을 分析, 分解하되 靜的存在로서人間만을 對象으로삼고 實踐的, 行動的의人間을 把握하지못하였다.

「從來의 모든唯物論—엠펬르썩하의唯物論까지너어서—의主要缺陷은 對象, 現實性, 感性을 다만 客觀의形式또는直觀의形式下에서만 把握하고 感性的, 人間的活動, 實踐으로서把握하지못하였스며 主觀的으로把握하지못한것이다」(十四)

「엠펬르썩하는 抽象的의思惟로써 滿足하지아니하고 感性的直觀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는 感性을 實踐的인間的, 感性的的活動으로서 把握하지아니한다」(十五)

「直觀的唯物論 即, 感性을 實踐的活動으로서 把握하지아니하는 唯物論이 到達하는 最高點은「市民社會」에 在한各個人의直觀이다」(十六)

「哲學者는 世界를 여러가지로 解釋하여야왔다. 그러나 問題는 世界를 變更함에잇다」(十七)

이리해 結局 十八世紀의佛蘭西唯物論은「抽象」을抽象的으로 把握하는 結果에 싸지게되어 觀念論者들이犯한 誤謬로부터 救援되지못하였다. 解決의열쇠는 辯證法的唯物論者의 손에만 쥐여지게된것이다.

(十二) 「神聖家族, 또는批判的批判의批判」 全集 第一卷 六五五-六五六頁.

(十三) 「資本論」 第一卷 三五二-三五三頁.

(十四) 「엠펬르썩하論綱」 I.

(十五) 同上 V.

(十六) 同上 IX.

(十七) 同上 XI.

그러면 맑스는 이것을 엇더케 規定하였는가? 그는抽象은반듯이「分析」과
結合되어야한다고한다. 社會科學은그實踐的特質로因하여 必然的으로現實과의
聯關을이저서는아니되고 紗러서그의「抽象」은반듯이「具體的」이어야한다.
그는악가引用한「哲學의貧困」에서 分析과結合되지아니한抽象을 觀念論者의
誤謬이라고攻擊하였다. (十八)

그러면分析은如何히하여 抽象과結合이되는가. 이것은唯物辯證法自體의特質
—形式論理學, 칸트의範疇論, 헤-겔的辯證法과區別되는 唯物辯證法的抽象의具
體性으로부터 說明되지아니하면아니된다.

形式論理學의範疇—抽象의方法에依하여到達하는最後의規定—는「內容의우에
있는」形式이오 紗러서그것은內容으로부터分離되어있으며 現實과類似하지못
하고 眞理를把捉하지못한다. (十九) 칸트의先驗的論理學의諸範疇는 이보담은
얼마쯤「進歩」되어있스니 卽그가「先驗的分析論」에서보혀주는 一과多, 實
在와否定等의範疇는 서로~對立物인點에잇서서辯證法的方法의萌芽를 보혀준
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칸트는 이範疇를現實界로부터집어내어 永久히意識
속으로움겨노았다. 그럼으로 칸트의諸範疇가갖고잇는矛盾은 現實의矛盾이아
니고 사람의認識機構의矛盾이다. (二十) 헤-겔은 이러한칸트의形式主義를克
服하고 辯證法的發展의論理를構成하였스나 그것은또한그의所謂絶對的精神의
發展段階를 說明함에쓰치었다. 이리해 헤-겔에잇서서는 辯證法은「각구로」
셋든것이다.

唯物辯證法은 헤-겔에잇서서각구로셋든辯證法을 바로세워노았다. 紗러서
「論理學은 思惟의外的形式의論理이아니라「모든物質的, 自然的及精神的事
物」의發展法則의理論, 卽世界와잇그認識의全體的 具體的內容의發展에關한理
論이다」(二十一)이唯物辯證法的具體性에서 抽象의具體性이演繹된다.

唯物辯證法의核心은 모든것은 聯關, 聯關의必然性을 가지고잇다는곳에있다.
우리의認識은 現實界를쪽바로反映하여야하는것임으로 紗러서우리의論理學—
辯證法的論理學은 이모든것의聯關의必然的法則을紗러 構成되어야한다. 卽 抽
象에依하여어든論理學의諸範疇는 現實과의關聯을가져야되며 다만抽象的이어
서는아니된다. 「辯證法的思惟의領域에잇서서는 思想은具體的이오 어느程度
까지對象, 事實, 現實的關係와融合되고 諸種의規定의統一이며 다만形式에잇
서서만抽象的이다. 맑스主義方法論의모든概念, 範疇, 資本, 生産力, 生産關係
等은 이와가치다만形式에잇서서만 抽象的이다. 그것은具體的이다. 웨그러냐
하면 그것은諸種의規定의統一이기때문이다」(二十二)레닌은이것을 다음과가
치말한다.

「卓越하게表式化되어있다. 抽象的—一般的일뿐아니라 特殊的, 個物的, 個別

的인것을 豊富히그自身속에體化하고잇는一般的! 훌륭하다!」(二十三)

우리가普通가지고잇는抽象的 一般의概念은 客觀的으로存在해잇는個物과 結合되어잇는것이다. 일즉이맑쓰가말한것가치 概念으로서의果實은 各個의果實의박게 잇는것이아니다. 資本主義社會라하는概念도또한 英國이나 米國이나의 各個의具體的인資本主義社會의박게잇는것이아니다. 이곳에唯物辯證法과 爾餘의學問의態度和의區別이잇스며 이곳에唯物辯證法의具體性의要求가잇스며 이곳에唯物辯證法에잇서서의理論과實踐의辯證法的統一이잇는것이다.

唯物辯證法의理論-意識抽象化의努力은-實踐-現實이要求하는限에잇서서의現實과의關聯을갖는限에잇서서의 現實과結合되는限에잇서서의 理論이다. 이곳에理論에對한實踐의制約이있다. 反對로이리해成立된理論은 實踐을指導하며 實踐을制約한다. 이곳에實踐에對한理論의制約이있다. 理論과實踐은서로制約하며 理論은實踐의要求에應하여發展하고 實踐은理論의指導에依하여發展한다. 理論과實踐의이러한必然的統一에잇서서 이데오로기로서의맑쓰主義는 그現實性 具體性의頂點에達하고 抽象은具體성과가장緊密히結合되는것이다. 이것을 三木清氏는「歷史에잇서서存在는存在를抽象함에依하여理論을抽象한다」(二十四)는命題로써說明한다. 「예를들면 商品은社會科學에잇서서 한가장抽象的인範疇이다. 그러나그것이單純히抽象的인것에지나지안는것이아닌것은 近代社會의機構가 商品이라는抽象體를 現實에잇서서具體的으로抽象해내이는데까지 이르렀기때문이다. 이리해抽象性은歷史성과結合한다」(二十五)

以上の說明으로써 唯物辯證法에잇서서의抽象은 觀念哲學者의그것과달르고 十八世紀唯物論의그것과도달르고 반듯이事象의具體性, 歷史性을일치아니하는 限度에스칠것, 實踐과의關聯에서머서나지아니하는 限度에스칠것이라는것을 大略明白히하엿다고생각한다. 이것으로 交換價値를노아의洪水以前부터存在하는 範疇로만들나는것은 觀念論者의抽象의濫用에지나지아니하는것이알녀것슬것 이오, 또世界는物質的基礎우에섯다는것을밝히엇슬뿐으로 그것을그歷史的流動에서把握하지못한唯物論者는 抽象을全體的으로把握하지못하고 다만그靜的方面으로부터만한것이엇다는것도 알녀것슬줄밧는다. 抽象을가장正當히規定할수 잇는것은 亦是唯物辯證法의立場뿐이다.

(十八) 「哲學의貧困」 前掲 五四七頁.

(十九) 룽폴 「레닌과哲學」獨逸版 八九頁參照.

(二十) 同上.

(二十一) 레닌 「헤-겔論理의科學大綱」畿文閣版 二六-二七頁.

(二十二) 룽폴 前掲 九三頁.

(二十三) 레닌 前掲 四四頁.

(二十四) 三木清 「唯物史觀과現代意識」 序文.

(二十五) 同上 「社會科學의豫備概念」 八六-八七頁.